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삶에 대한 감사함, 산에서 배웠죠”

‘히말라야’ 오늘 개봉... 故 박무택 대원 역 정우

“정보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싶어요. 뭐가 됐든 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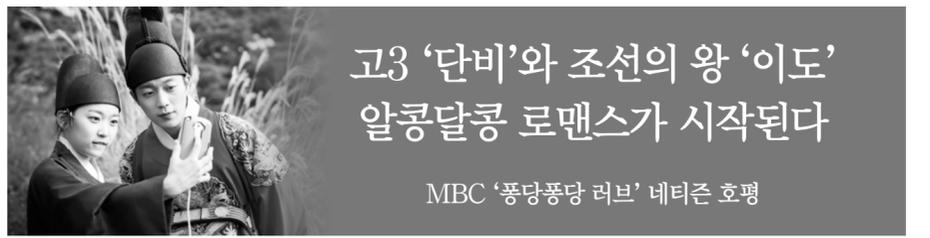
특히, 정우는 박무택 대원이 히말라야에서 숨을 거두는 연기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고생을 했다.

“다시 가면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웬만해서는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후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산악영화에, 지금은 고인이 된 인물 연기는 더욱 막대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히말라야’는 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산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산악인이라는 직업과 주변 환경이 나와 다를 뿐, 감정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3 ‘단비’와 조선의 왕 ‘이도’ 알콩달콩 로맨스가 시작된다

MBC ‘풍당풍당 러브’ 네티즌 호평

조선시대 기우제를 지내던 궁궐 앞마당에 해괴한 모습을 한 인간이 나타난다. “인간이나, 도깨비나, 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는 임금 이도의 물음에 이 인간은 “전 고삼 고삼인데요”라고 답한다.

를 나눠먹은 이도는 “뱃속에 화마가 들었다”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정조를 경악케 한 ‘고삼’ 정체는 바로 대학수학능력 시험날 갑자기 조선시대 궁중궁궐 한가운데로 떨어진 ‘고3’ 단비다.

케이블드라마 tvN ‘오 나의 귀신님’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김슬기는 이번 작품에서 영동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였다.

MBC TV 드라마 ‘풍당풍당 러브’는 시간 이동을 소재로 고3 소녀와 조선 왕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연출자인 김지현 PD는 15일 “김슬기와는 전작인 ‘원녀일기’ 때도 힘이 좋았다”라면서 “이번 작품 대본도 김슬기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말했다.

현대의 단비는 수학 때문에 수능 응시를 포기할 정도로 ‘수포자’(수학포기자)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고3이라면 누구나 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 산학(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이해 득세를 부지하게 된다.

“풍당풍당 러브”는 MBC 최초로 웹툰과 지상파 방송을 작업을 분리해 제작된 드라마다. MBC는 드라마를 10분 길이 영상으로 재편집해 네이버TV캐스트에서 선공개했다.

단비와 이도는 수학 수업을 매개로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 설렘을 느끼게 된다. ‘풍당풍당 러브’는 발랄함과 경쾌함이 넘치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1회 ‘조선에 내린 단비’와 2회 ‘술모있는 고삼이’ 3회 ‘영 싫은 고삼이’ 4회 ‘내 마음속 고삼이’ 5회 ‘가자마라 고삼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윤석은 지난 9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3일 등륙된 예고편을 비롯해 전체 영상 조회수는 15일 오후 5시 현재 181만으로 집계됐다. TV에서는 13일 자정에 본편 1회가 방송된 데 이어 20일 2회가 방송된다.

이윤석은 1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친노당”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다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조적으로 당내에서도 쓰는 말이고, ‘전라도당’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다면 문재인 대표도 부산에서 본인이 정치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면서 썼던 표현”이라며 이윤석을 옹호했다.

이윤석은 지난 9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 “저처럼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이 싫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윤석은 지난 9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 “저처럼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이 싫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윤석은 지난 9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 “저처럼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이 싫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윤석은 지난 9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 “저처럼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이 싫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EBS1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1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6일(음 11월 6일 丙寅)

- 48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하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60년생 반복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 변화를 도모해 보자. 72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재반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 89, 50

- 42년생 대우 관계에 놓이게 된다. 54년생 상당한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다. 66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8년생 긴밀한 협조와 멤버십이 절실할 때이니 대인관계와 처세에 공을 들여라. 행운의 숫자 : 31, 55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이윤석 “야당은 ‘전라도당’ 느낌” 발언 사과

이윤석은 1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연습뉴스